

## 이런 것,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Have you thought about these issues?



정진주 / 청주대 건축학과 조교수

Jung, Jin-Ju / Assistant Professor, Cheongju University  
jinjuj@cju.ac.kr

### 1. 함께 생각해 보시죠.

우리 사회와 패러다임은 빠른 속도로 변화해가고 있는데, 우리 학교의 시설과 환경은 그 변화에 어느 정도 대응해 오고 있을까?

예전에 학교는 “가르치는 곳”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기술의 발전과 패러다임의 변화는 학교를 “학습하는 곳”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이 말은 이전보다 학교환경을 만들 때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대상으로 학습하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의미이다. 이처럼 패러다임의 변화를 특히 중·고등학교의 경우 학교시설 및 환경의 변화가 얼마나 쫓아왔을까?

우리나라 초등학교의 시설 및 환경 측면의 경우에는, 지난 수십년간 국가 차원의 지속적 투자로 인해 이제는 선진 국가들과 비교해 볼 때도 상당히 높은 수준에 와 있음을 알고 있다. 최근에 지어진 초등학교들을 가보면 정말 너무도 많이 변했고, 참 좋아졌구나라는 감탄을 자아낸다.

그러나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살펴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아마도 학생, 교사, 학부모, 교육당국들 모두에게 학교시설이 변화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무엇이 있었던 것이 아닌지? 혹시 ‘대학입시’라는 명제가 중학교 특히 고등학교의 경우 다른 어떤 가치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학교시설 및 환경은 나중에 변화해도 된다고 학생, 학부모, 교육당국, 건축가들, 심지어 이 사회가 우리 스스로를 설득해 오지는 않았던 것인지 반문한다.

역으로 현재 우리의 입시 위주의 사회에서 사실 그보다 비교할 수 있는 것을 찾기 어렵겠지만, 이제는 중학교와 고등학교에도 사회와 패러다임의 급속한 변화, 교과과정의

변화, 학습자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학교시설과 환경이 변화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처럼 변화하는 교육환경과 사회현상에 학교 건축이 어떻게 대응해 가야하는 지를 곰곰이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지 묻고 싶다. 건축가들의 학교설계에 대한 인식의 변화도 함께 해왔는지도 묻고 싶다. 별로 생각해 보지 않았다면, 아니면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지를 몰랐다면, 최근에 신축되거나, 현상설계에 당선된 몇몇 사례 등을 대상으로 필자가 생각해 오고, 고민해 온 것들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인식의 변화가 생기기를 기대하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 2. 학교시설 건축가입니까? 창의적인 학교시설 건축가입니까?

이 말이 무슨 차이가 있을까? 앞서 말했듯이 우리 주변에는 스스로 학교시설 건축가라고 하는 분이나 설계사무소가 제법 있다. 정말로 한 우물 파듯이 학교건축에 대해 수년간 공부하고, 답사하고, 투자를 아끼지 않고 이를 바탕으로 계획하고 설계하고 하는 분들이 정말 있다.

그러나 아주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간 여러 사무소들의 컨소시엄 형태로 진행된 BTL 설계경기에 두어 번 참여해 설계를 해보고, 학교시설 건축가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다. 물론 한 번도 학교시설 설계를 안 해본 많은 분들과 비교하면 그럴 수 있을 것이다.

그림 1의 사진을 보자. 일본 토모에 가오카 초등학교의 음악실과 식당의 모습이다. 음악실이 평소에는 벽을 막은 채 수업하다가 1주일에 몇 차례 벽을 열고 식당에서 학생



그림 1. 일본 토모에 가오카 초등학교 음악실과 식당  
(사진 : 카나메 야나기사와 교수, 치바대)

이나 교사들이 점심식사를 하며 수업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한다. 음악실과 식당이 만들어 낼 수 있는 두 공간의 연계, 기막힌 조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음악실은 소음이 발생해 다른 여타 수업에 방해가 되니 가급적 깊이 또는 높은 곳에 감쳐두려는 설계(?), 식당은 단순히 밥을 먹는 장소로서만 사용되도록 하는 설계(?)가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설계가 아닌가?

이러한 공간의 연계를,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요구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렇게 음악실이 학교생활 및 학생 교류의 중심적인 위치에 있고, 공간 활용의 다양화, 복합화에 대한 힌트를 이 식당에서 얻을 수 있다면, 심도 있는 고민과 학습으로 인해 탄생한 이 공간을 제안한 사람이 바로 “창의적인 학교시설 건축가”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단순히 거의 비슷한 학교설계 몇 번 해본 “학교시설 건축가”가 아니고.

### 3. 무엇을 전시하고 싶은 거지요?

요즘 신축하는 학교 설계의 1층 도면을 보면, 중앙 로비나 교장실 앞에 반드시 나타나는 공간이 바로 전시실이다. 현상설계이건, 입찰방식이건, BTL 방식이건 거의 대부분 그렇다. 학교에 전시실을 두겠다는 것을 트집 잡자는 것이 아니다. 이 공간의 성격이 모호해서이다. 가령 새로 개교하는 학교의 역사를 어떻게 만들어 보여줄까? 물론 앞으로 만들어 갈 역사를 보여 줄 공간으로 확보하겠다고 하면 그럴 수 있다.

학교 전시실의 성격은 대략 다음과 같을 것이다. 역사가 아주 오래 된 학교의 과거를 보여 주는 공간, 학교 통폐합으로 사라진 학교들의 과거를 보존해서 보여주는 공간, 학생들의 과제나 작품결과물을 보여 주는 공간 등일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학교에 전시실을 계획할 때 이런 기능 등을 고려하고 전시실을 계획하고 있는가? 단순히 1층 로비 넓은 공간에 별다른 고민 없이 칸 채워 넣기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다음 그림 2, 3을 보면, 같은 고민으로 계획된 공간임을 알 수 있다. 첫 번째는 일본의 하카타초등학교의 전시실이고, 두 번째는 충북 보은의 속리산중학교의 전시실이다. 두 학교의 공통점은 인근 3~4개의 소규모 학교가 통합되면서 하나의 학교를 신축한 경우이다. 두 전시실은 통합되어 폐교된 학교의 과거의 역사를 보존하여 전시하는 “역사전시실”이라는 성격을 보여주겠다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림 2. 일본 후쿠오카 하카타초등학교 지하 1층 역사전시실



그림 3. 충북 보은 기숙형중학교의 1층 도서관과 역사전시실 (2010년 현상설계 2등안)

이와 같은 역사전시실의 성격이 아니라고 하면 학교에는 학생들의 작품들을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제시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공간은 단순히 로비가 아닌 전시가 가능한 결과물이 파생될 수 있는 교과목(미술, 기술, 과학실 등) 교실과 인접한 위치에 배치되는 것이 적합할 것이다. 그림 4의 충북 음성 본성초등학교의 1층에 위치한 미술실과 인접시킨 전시 갤러리의 사례에서처럼.



그림 4. 충북 음성 본성초등학교의 1층 미술실과 전시갤러리 (2012년 현상설계 1등 당선안)

#### 4. 학교폭력예방을 위해 예체능교과가 강화되고 있지요?

요즘 학교내의 현상이 사회 전반에서 가장 공통적인 관심사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학교폭력 및 학생 따돌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단순히 학생들과 학교 내부 차원의 문제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사회적인 현상이 되어버렸고, 결국 사회에서는 왜 이렇게까지 되도록 내버려 두었을까 하는 자성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드높기까지 하다.

결국 학생들의 인성 함양의 부족, 사회성 결여, 가정교육 약화 등이 이러한 상황에 이르게 되는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고 가닥을 잡으면서 정부는 학생들의 인성교육을 강화하여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데 효과를 기대하고자 여러 방침을 만들게 된다.

이를 위해 학생들의 인성 및 감성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음악, 미술, 체육 교과 등의 예체능 교과를 정상화시키거나 기존의 교육과정보다 더 많은 시수의 수업이 이루어지도록 각 학교에 지도하고 있다. 갑자기 이러한 방침을 세워 추진한다고 해서 없었던 인성이나 감성, 사회성 등이 향상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또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데 얼마나 큰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어찌되었든 지금껏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이었던 ‘서자’ 취급을 받았던 예체능 교과들이 정상화될 수 있게 될 거라는 점에서는 다행이지만 아주 다행이다.

이제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 교육과정 측면에서 예체능교과를 정상화시키고자 움직이고 있다면, 우리도 과연 그러한 움직임에 함께 하고 있는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다수의 학교에서, 또는 지금 우리가 설계하고 있는 학교의 음악실, 미술실은 어디에 있는가? 앞서 말했듯이 음악실은 소음이 발생해 다른 여타 수업에

방해가 되니 가급적 깊이 또는 높은 곳에 감쳐두려는 설계를 하고 있지 않은지? 과장된 표현이지만, 그림을 그리거나 노래를 부르는 것보다, 그 시간에 다른 공부를 조금이라도 더하도록 학교에서 요구하고, 또 그렇게 운영되니까, 미술실이나 음악실의 배치에 대해, 단일 건물이라면 가장 최상층 단부에, 여러 동 건물이 있는 학교라면 가장 후관동에, 또는 저 멀리 떨어진 별관동에, 또는 다른 교실다 배치하고 남는 교실에 그저 빈 칸 채워 넣기 식으로 음악실과 미술실을 배치하면서 별다른 고민을 하지 않았는지?

음악, 미술, 체육 교과 등이 학생 인성과 감성을 함양시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면, 그래서 교육과정도 강화되고 있다면, 학교건축도 이와 같은 노력과 변화에 함께 힘을 보태야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림 5, 6의 2장의 그림은 이와 같이 중요성이 강화된 교과인 음악실과 미술이 더 이상 학교에서 천대받지 않고, 중요한 위치에 있을 수 있도록, 학교 생활 및 학생들이 교



그림 5. 충북 음성 본성중학교의 1층 미술실과 음악실 (2012년 현상설계 1등 당선안)



그림 6. 충북 진천 석장초등학교의 1층 미술실과 음악실 (2012년 현상설계 1등 당선안)

학교 시설 및 환경의 종합적 향상을 위한 제언

류하는 가장 중심적인 위치인 1층에 위치시킨 사례이며, 이는 건축적으로 공간의 배치나 구성 등의 건축의 역할이 그 고민여하에 따라, 학생들의 인성교육을 함양시키거나 교육학적 측면에서 요구하는 교육적 효과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확실한 사례가 될 수 있다.

5. 1층에 무엇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학교내에서 음악과 미술, 체육교육 외에도 학생들의 인성과 감성, 창의성을 함양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육은 무엇일까? 다른 여러 교육도 있겠지만 아마도 책읽기 교육이 아닐까 한다.

몇 달 전 학교건축 전문가, 교사, 학생들과 함께 성남에 위치한 국제학교를 방문한 적이 있다. 유치원, 초·중·고등학교가 모두 다 있는 학교로 미국의 교육과정을 따르는 한국내에 위치한 미국 학교였다. 학교를 둘러보는 동안 여타 교실 등에서는 별다른 감동이나 우리보다 낫다라고 할 수 있는 공간을 거의 찾아 볼 수가 없었다. 그러나 정말 우리와 차별되는 공간이 두 가지 있었는데, 그것은 도서관과 체육관이었다.

그림 7, 8의 그림은 성남국제학교의 중학교와 초등학교의 도서관이다. 중학교는 서가와 열람실이 ‘ㄱ’자로 나뉘어진 형태로, 초등학교는 유치원 학생들을 위한 공간과 구분되어 정보검색공간이 배치된 형태로 구성되어 있었다. 각



그림 7. 성남국제학교 중학교 도서관



그림 8. 성남국제학교 초등학교 도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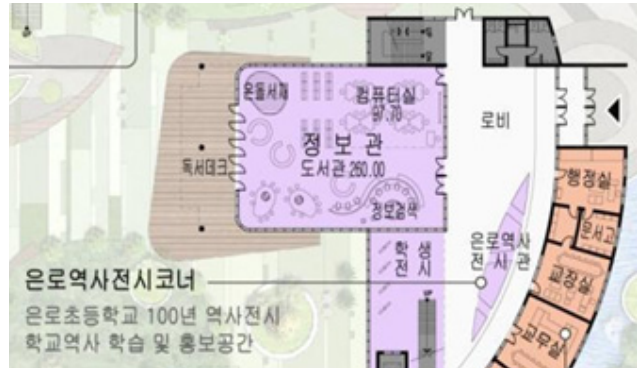


그림 9. 서울 은로초등학교의 1층 도서관(내부 컴퓨터실) (2011년 현상설계 1등 당선안)

각 도서실의 규모도 우리보다 훨씬 큰 것이 차이점이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두 도서실 모두 학생들 이동이 집중되는 1층에 위치하고 있었다.

우리의 도서관은 어디에 있는가? 사실 최근에 지어지는 학교들 중에서는 그림 9의 서울 은로초등학교 현상설계당 선안의 1층 도서관(내부에 컴퓨터실) 사례와 같이 학생 이동과 학교공간의 중심에, 그리고 1층에 도서관이 위치하는 경우가 간혹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기존의 많은 학교와 신축되는 학교들 중에도 앞서 말한 음악실, 미술실 처럼 높은 층이나 한쪽 구석에, 학생들이 잘 다니지 않는 곳에 서고로서만 기능하는 도서관이 대부분이다.

여기서 학교 건물 1층에 무엇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단순한 물음을 던지고 싶다.

아마 건축을 전공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졸업한 학교의 본관동을 그려보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 비슷한 도면을 그럴싸하게 그려낼 것이다. 1층 중앙 현관에 들어가면 전면에 계단이 있고, 그 옆으로 화장실과 숙직실이 위치하고 있다. 현관 좌측이나 우측으로 행정실, 교장실, 보건실, 특수학급 등이 위치하고 반대편으로 교무실, 교실, 그리고 화장실, 계단, 과학실 등의 실습실이 양 측 단부에 위치하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예전에 다녔던 학교들의 층별 구성은 대부분 이래 왔다. 공사비 절감, 학교 유지관리 용이성, 냉난방비 절감, 교실내 균등한 채광과 통풍 환경 제공 등의 효율성 때문에 과거에는 이와 같은 획일화가 큰 의문 없이 받아들여 왔다. 그러나 이제는 사회도, 경제도, 학교 규모도, 학급당 학생 수도, 교육과정도, 학생도 모두 바뀌게 되었고, 그로 인해 학교의 기능도 변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었다. 그렇다면 우리 학교의 층별 구성도, 1층의 배치도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위에서 그린 학교 공간을 대부분 보면 학교를 유지 관

리하는 기능의 행정관리공간 등이 주로 1층에 위치하고 있다. 교사들을 위한 공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어른들을 위한 공간이 주로 1층에 있어 왔던 것이다. 보건실, 특수학급이나 행정실 등은 1층에 위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다른 기능들은 이제는 어느 층에 위치하는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상황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제는 역으로 왜 학생들을 위한 공간이 1층에 있으면 안되 가 생각해보자. 학생들의 이용 및 교류가 가장 많고, 교육과정상 학교 교육의 중심이 되는 공간과 시설 등이 1층에 위치해야 하지 않는가? 앞서 말한 음악실, 미술실, 도서실, 학생 휴게실 등이 그래서 1층에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림 10은 2012년 3월에 개교한 세종시 참샘초등학교의 도서실이다. 도서실을 1층 주출입구 오른쪽에 복도측면을 전면 개방해 열린 도서실로 구성 배치하였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용하는 주출입구이고, 친구나 형제를 기다리는 곳이기도 한 이곳에 도서관이 배치돼 학생들의 생생하고 즐거운 교류 현상이 되었다. 학생들을 위한 가장 중요한 공간이 제 자리에 아주 적절히 위치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들기에 충분했다.

선생님들은 처음 이 학교에 부임했을 때, 이 도서실 공간이 너무 산만하고 시끄러워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겠구나라고 큰 염려를 가졌다고 한다. 그러나 개교 초기에는 그런 일이 나타났지만, 이후 학생들이 1층이 아닌 다른 층 복도에서는 뛰거나 소란스러울 수 있지만, 1층 이 곳 도서실 앞 복도에서는 그러지 말아야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의식을 서로 공유하고 이를 실천해 나가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고 한다. 학생 스스로가 서로에게 배려하고 자신이 먼저 준수하는 학교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

는 것이며, 이를 통해 자연스러운 사회성 함양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이 지나친 비약이었을까?

그림 11과 12는 충북 괴산에 위치한 괴산북중학교 1층 도서실이다. 이 학교는 2011년 교과교실제 학교운영방식 선진형 대상에 선정돼 필자가 전체적인 시설부문 컨설팅을 진행하여 리모델링하고, 2012년 3월부터 운영되고 있는 학교이다. 교과목별 조닝이나 교사연구실, 홈페이지, 미디어스페이스 공간의 확충으로서만이 아닌 교과교실제를 도입하면서 어떻게 하면 학교가 새롭게 변화할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 이 작은 학교에 어떠한 공간의 변화가 필요할까를 선생님들과 수차례 고민하였고, 초점을 맞춘 공간이 기존의 1층 로비를 도서실로 변화시키기로 하였다. 단순히 학생들이 가장 많이 통행하던 공간이었던, 2층까지 오픈된 1층의 기존 중앙 홀 주변에 홈페이지를 둘러 싸 배치하고, 채광창을 설치하고 전체 공간을 도서실로 구성 하였다.

2층까지 개방된 넓은 도서실은 상당히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는 데,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은 공간에 이용하기에 다소 조심했던 어린 학생들이, 산골에 위치한 소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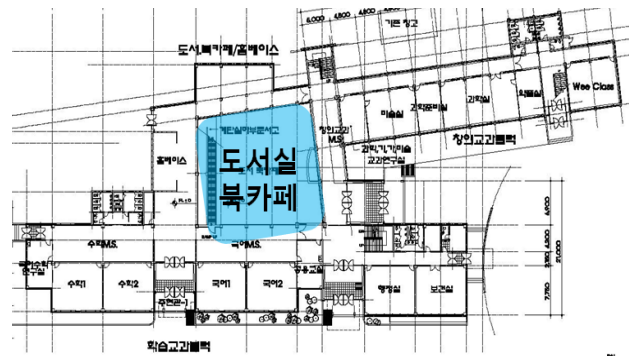


그림 11. 충북 괴산북중학교 1층 도서실,북카페(2층 오픈) (2012년 교과교실 선진형 리모델링)



그림 10. 세종시 참샘초등학교 1층 주출입구에 위치해 복도에 개방된 도서관 (2012년 3월 개교)



그림 12. 충북 괴산북중학교 1층 도서실,북카페(2층 오픈)

학교 시설 및 환경의 종합적 향상을 위한 제언

중학교의 도서실의 모습이 마치 외국에서나 본 듯한 학교 같으며 즐거워하고, 이 공간을 떠날 줄 모르는 모습이 흥미롭게 비춰졌다.

6. 영어만 잘하면 국제화가 되나요?

요즘 학교의 교육내용 중에서 영어몰입교육, 영어집중교육 우리가 가장 자주 듣는 단어 중의 하나이다. 이와 같은 교육정책 때문에 초등학교에는 ‘영어체험교실’, 중고등학교에는 ‘영어전용교실’ 등이 수천억의 예산이 투입 돼 전국의 모든 학교에 각 교실과 엄청난 기자재를 설치해 만들어지고 있다. 사실 중고등학교의 영어전용교실 사업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교과교실제 학교운영방식의 영어교과교실과 중복되므로 사업을 교과교실제 사업 하나로 통일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과교실제 선진형은 당연히 특성화된 영어교과교실을 갖추고, 과목중점형은 거의 대부분 학교에서 영어와 수학을 선택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왜 영어교육을 이토록 강조하는 걸까? 아마도 영어를 잘하면 국제적 무대에 진출해 다양한 일을 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이고, 그 교육을 학교에서 해주길 바라는 기대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영어 잘한다고 국제화라는 대열에 쉽게 합류할 수 있을까? 아니, 다시 정확히 말하자면 “영어만 잘한다고”라는 표현이 맞겠다. 사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많은 나라에서도 초중등 교육에서 영어를 중요한 과목으로 가르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말했듯이, 이러한 영어교실은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에서 수업내용 및 방식, 목표 등이 전혀 다르듯이, 그 건축적 접근도 분명히 차이를 주지하고 계획해야 한다.

그림 13은 충북 음성 본성초등학교 현상설계 당선안의 국제관의 설계 사례이다. 보통 학교별 영어체험교실 1.5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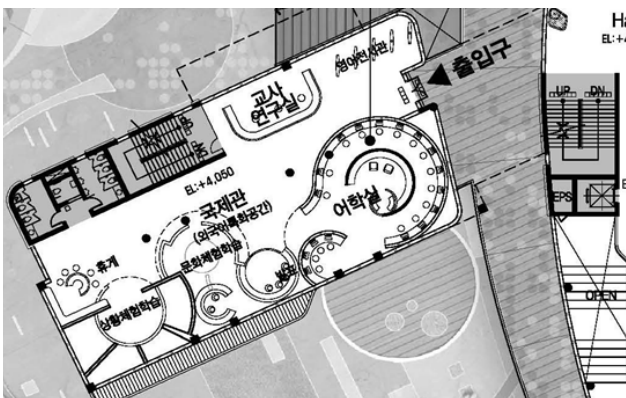


그림 13. 충북 음성 본성초등학교 국제관(외국어특화공간) 존 (2012년 현상설계 1등 당선안)



그림 14. 충북 음성 본성중학교 국제화교과 블록 존 (2012년 현상설계 1등 당선안)

준비실 및 교사실 0.5실, 총 2.0실로 구성하는 것이 보편적이어서 단순히 교실 모듈이 그대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많은 것이 현 상황이다. 본 사례는 교실 2.0실의 모듈에 복도를 포함해 하나의 단일한 복합공간으로 구성해, 초등학교 영어교육에서 필요한 다양한 체험학습을 가능하도록 하고, 단순히 영어교육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흥미를 잃지 않도록 복합적인 휴게공간까지의 개념을 포함시켜, 외국어 특화공간의 개념이 적절히 적용된 계획사례라 할 수 있다.

또한 국제적인 인재를 배출하는 세계의 많은 나라의 학교들에서는 영어 한 교과목 뿐만이 아니고, 역사, 사회, 경제, 정치 등의 사회·역사 관련 지식이 부족하다면 불가능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 이 관련 교과목을 매우 중요하게 교육시키고 있고, 그 교과목들을 영어로 수업하거나 또는 영어와 함께 융합하여 수업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그림 14는 교과교실제 학교운영방식을 적용한 충북 음성 본성중학교 현상설계 당선안의 영어 및 사회교과의 국제화교과 블록 존 사례이다. 위에서 말한 것처럼 교과교실의 조닝을 영어교과와 사회역사교과를 함께 묶어 국제화교과 블록 조닝으로 차별화시키고, 그 2개 교과군의 중앙에 사회역사와 영어교과가 함께 수업할 수 있는 융합 학습공간을 배치시킨 일반 학교의 교과교실의 조닝과 교실 배치와 차별화된 계획안이다.

7. 다문화가정 출신 학생을 위한 학교내 커뮤니티 공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나라의 외국인 주민들의 수는 경제 발전과 함께 농촌 지역의 국제결혼 증가, 3D 직종의 기피 현상과 같은

이유 등으로 그 증가가 계속되고 있으며, 외국인 주민들이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점 또한 다양하고 심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또 이러한 외국인 주민들의 증가는 다문화가정 출신 학생들의 증가로 이어지게 되며 농촌 지역의 학생 수 감소 현상과 맞물려 농촌 지역 학교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 사료된다(앞으로는 전국적인 상황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지만).<sup>1)</sup>

결국 학교생활 및 교육적 측면에서 다문화가정 출신의 학생들이 겪는 문제점들이 더욱 다변화됨에 따라서 학교에 요구하게 되는 사항 또한 다양해 질 것이라 사료된다. 현재 이러한 다문화가정 출신 학생들에 대한 학교의 지원과 관심은 단순히 부족한 학생들의 학습능력 향상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농촌 지역 학교의 변화로 인한 문제점의 해결 방안은 단순히 다문화가정 출신의 학생들만을 위한 지원이 아닌 일반 학생을 포함한 양측을 모두 염두에 두고 진행 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며, 위의 두 그룹이 학교 내에서 원만한 커뮤니티 활동을 하기 위한 새로운 관점과 기능의 공간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림 15는 벽화그리기 등을 통해 “비록 얼굴은 서로 달라 보이지만 우리 모두는 친구”라는 편견없는 시각의 중요성을 전달하는 아이들의 모습으로, 우리가 앞으로 나타날 현상에 대해 걱정하고 고민하는 것이 사실은 다문화가정 출신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일반 학생들에게도 공통적으로 나타나거나 혹은 상호에게 큰 영향을 줄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라하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그렇다면 교육 프로그램으로 국한되어 있는 다문화 가정 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학교 시설적인 면으로 확대하여



그림 15. 달라도 친구 - 학생들이 함께 그리는 벽화 (사진 : 디지털 농어민, 한국농어민 신문 2011년11월17일자)

1) 정진주의, 한국교육시설학회논문집 제19권 제2호 통권 제87호 2012년 3월. 내용 발췌



그림 16. 충북 보은 내복초등학교 다문화체험 공간 (2011년 현상설계 1등 당선안)

향후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수가 더욱 늘어날 경우에 학교 시설이 어떠한 대비를 하여야 하는지가 우리 학교건축에서도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그림 16은 충북 보은 내복초등학교 현상설계 당선안의 다문화체험 공간의 사례이다. 이 계획안은 도서실과 영어 체험교실에 인접시켜 다문화언어 체험 부스를 만들어 이 지역 및 학교에 많은 다문화가정 출신 학생들의 원활한 학교생활 및 일반 학생들과의 상호교류를 함께 모색한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다.

비록 다문화가정 출신 학생들을 위한 공간이 심도있게 강조되었다고 하기 어렵지만, 영어를 체험하고 그 공간이 우리 학생들에게 필요하다면 다문화가정 출신 학생들의 다문화언어도 서로 함께 체험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그 공간을 작게나마 같은 곳에 배치한다라는 생각의 전환이 시작되었다라는 점에 중요한 가치를 두고 싶다.

그림 17은 충북 석장초등학교의 현상설계 당선안의 국제화공간의 사례이다. 이 사례는 그림 16의 보은초등학교



그림 17. 충북 진천 석장초등학교 국제화공간(다문화공간) (2012년 현상설계 1등 당선안)

의 다문화언어체험 부스에서 보다 발전해, 영어라는 언어도 하나의 다양한 다문화 언어중의 하나로 인식하고, 영어뿐만 아니라 다문화 및 다언어를 학습하고 체험하는 것이 미래사회를 위한 글로벌화라고 인식하는 중요한 계기이면서 그러한 공간을 함께 묶어 글로벌센터 공간으로 차별화시킨 아이디어를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여타 다른 학교들에 시사하는 바가 크며, 시기적으로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 8. 학교 교육과정의 내용을 이해하시면 학교 설계가 더 다양해지겠죠?

지금까지 학교 건축에 대한 설계, 자문, 컨설팅, 심사, 심의 등의 경험을 바탕으로, 학교 현장에 갈 때마다 무언가 부족하거나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끼면서, 필자가 항상 생각해 온 내용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하면서, 제언으로 말씀드렸다.

간혹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그러한 공간 등은 나중에 학교에서 알아서 구성하는 것 아니냐며, 건축가가 그렇게까지 교실 내부나 복도의 교구나 책상 배치, 공간구성 등까지 상세히 제시해야 할 필요가 없고, 전체적인 시설 배치 및 조닝 등을 제시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하는 분들이 있다. 그 분은 아마도 학교는 거기서 거기 아니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필자의 생각은 다르다. 학교시설을 설계하는 건축가는 학교 교육과정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이를 적용한 설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학교 설계가 훨씬 더 다양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중중 학교 설계에 대해 자문이나 심사, 심의를 해 보면 어떤 작품은 교실내외부 등의 공간구성이 상세히 제시되어 있는 반면, 단지 공간구획 정도만 제시되고 있는 작품들의 수도 상당히 많다. 각 교실의 내부나 복도 또는 학교의 여러 공간의 구성을 건축가가 설계시 꼭 제시해야 할 사항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지만, 다른 관점에서 보면, 학교 교육과정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면 반대로 전혀 제시할 수 없는 사항이 된다는 것이다. 결국 내부 공간구성을 했느냐 안했느냐의 차이는, 시간이 있고 없고, 지침에 있건 없건, 알고 있는 데 표현하지 않았더라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내용을 충분히 공부하고 인지해서 설계에 적용할 능력이 있느냐와 없느냐의 차이라는 것이다.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 및 활동 등을 충분히 이해했을 때, 그에 대응한 또는 새로운 교육과정 변화에 대비할 수

있는 학교건축의 계획안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것이다. 결국 학교 전체적인 시설 배치 및 조닝 등도 학교 교육과정을 충분히 이해했을 때 비로써 학교 현장에 필요한 바람직하고, 재미있고, 다양한 계획이 제시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건축하는 모든 분들이 학교 교육과정을 잘 알고 있어야만 하는 것이냐? 당연히 그렇지 않다. 자신이 또는 회사가 “학교시설 건축가”라고 한다면 그럴 필요가 있는 것이다. 아니 “창의적인 학교시설 건축가”가 되고 싶다면 꼭 그렇게 해 달라고 부탁드리는 것이다.

가끔 실무자들이 이런 것 어디에서 알 수 있는냐고 물어오기도 한다. 학회에 오시면 된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학회에서는 연간 2차례 이상에 걸쳐 교육학자, 교사, 교과부 관계자, 설계자, 교수 등 각계의 전문가들을 두루 모셔놓고 학술대회 및 특별강연 등을 다양하게 개최한다. 이 때 이러한 내용 등을 알 수 있는 특강이 진행되고 자료가 배포된다. 평소 시간 될 때 학회에 와서 편안하게 공부하시길 바란다.

지금까지 필자의 입장에서 너무 편하게 쓰고, 두서없이 풀어 놓은 이 글을 읽으시는 여러분들 중에서 필자와 의견이 다를 수 있는 분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부탁컨대 필자의 생각과 의견을 서로와 다른 하나의 이견이지만, 하나의 제언으로 들어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이 글을 통해 우리 학교건축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게 된다면 더할 나위 없겠다.

### 참고문헌

1. 정진주의, 한국교육시설학회논문집 제19권 제2호 통권 제87호 2012년 3월. 내용 발췌
2. 충청북도교육청, 보은 내북초등학교, 음성 본성초등학교, 음성 본성중학교, 진천 석장초등학교 현상설계 1등 당선안, 2012. 보은기숙형중학교 현상설계 2등안, 2011
3. 서울시 동작구교육지원청, 은로초등학교 현상설계 1등 당선안, 2011